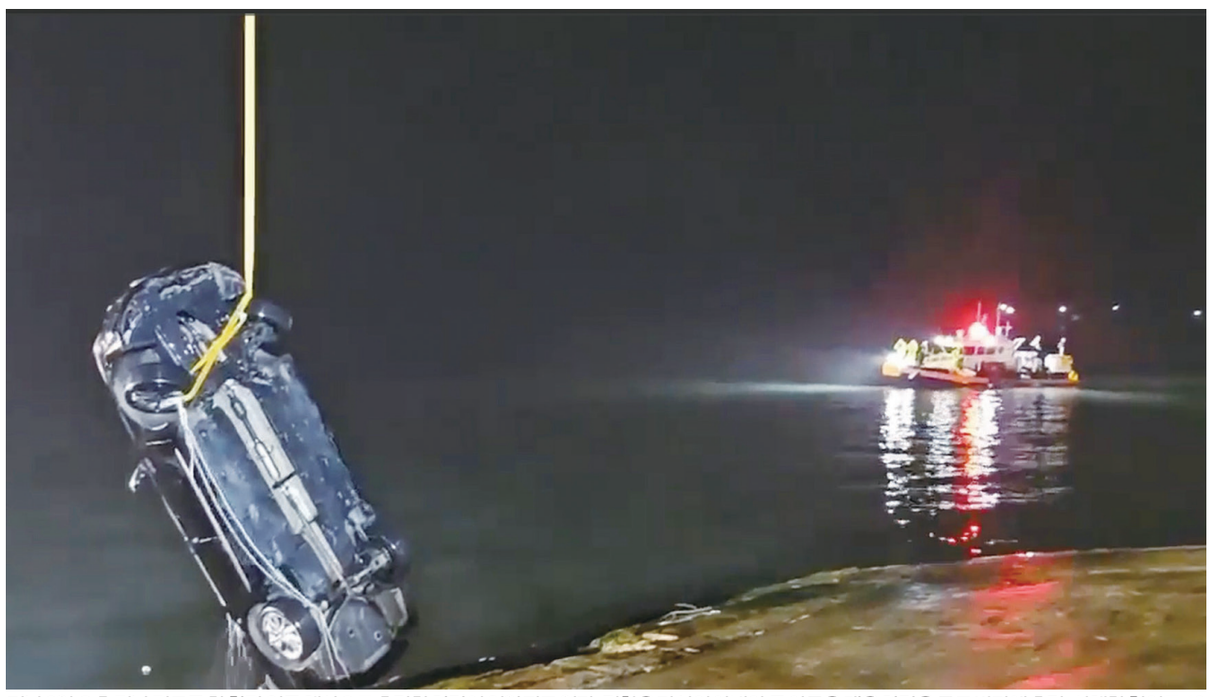
“빚 때문에” 가족 태워 바다 돌진한 가장…계획살해 시인



지난 2일 오후 전남 진도군 한 항만 인근 해상으로 추락한 차량이 인양되고 있다. 경찰은 자신의 아내와 두 아들을 태운 차량을 몰고 바다에 추락, 살해한 혐의로 40대 아버지를 붙잡아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생활고 비관’ 비속살해에 ‘무게’… 경찰, 동기·경위 규명

“수면제 먹였다” 진술, 아내·두 아들 검시선 ‘단순 익사’

국과수 부검·차량 감식·행적 재구성… 다각적 수사 집중

가족을 태운 차량을 몰고 바다로 돌진해 살해한 40대 아버지가 “채무가 많아 힘들었다”고 진술, 경찰이 생활고 비관에 따른 비속 살해 범행에 무게를 두고 집중 수사하고 있다.

현장 1차 검시에서 숨진 아내와 아들 2명 모두 ‘외상 없는 익사’ 소견이 나왔다. 아버지는 가족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범행했다고 시인했다.

경찰은 차량 감식에 나서 차내 블랙박스 유무와 입수 직후 몸부림 흔적이 있는지 등을 살피고 정밀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망 경위를 규명한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3일 일가족을 태운 차량을 몰고 바다로 돌진해 숨지게 한 아버지 A(49)씨를 살인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1시12분께 전남 진도군의 한 항만 선착장에서 동갑내기 아내와 두 아들(18·16)이 탄 승용차를 몰고 바다로 돌진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가족이 탄 차량은 전날 밤 선착장과 약 30m 떨어진 수심 3~5m 아래 해상에서 발견됐다. 차량 내에서는 아내와 두 아들이 숨진 채 발견돼 인양·수습됐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경찰에 “채무가 많아 생활고로 힘들었다. 아내와 두 아들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바다로 돌진했다. 입수 뒤 홀로 차량에서 빠져나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인양한 차량은 운전석·조수석 모두 창문이 열려 있었고 이 틈으로 A씨가 홀로 뭍으로 빠져나온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A씨는 건설현장에서 철근 배근 작업으로 생계를 꾸려온 일용직이며 아내와 고등학생인 두 아들과 함께 북구 한 원룸에서 생활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채무 부담 등 경제적 형편이 여유롭지 않았고 이를 비관해 A씨가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A씨의 구체적인 금융 거래 내역을 확보·분석해 범행 동기 관련 A씨의 진술을 교차 검증한다.

숨진 일가족의 사인과 관련해 1차 검시 소견은 ‘외상 없는 익사’로 잠정 파악된 만큼 A씨가 범행 직전 가족에게 수면제를 먹여 살해의 계획성과 고의성이 있었는지도 집중 조사한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숨진 아내와 두 아들에 대한 정밀 부검을 의뢰했다. 특히 수면제 성분 검출 여부를 주로 살핀다. 부검은 4일 오전 진행된다.

바다에서 건져 올린 차량 내 블랙박스 저장 기록 유무와 입수 직전 일가족이 몸부림치며 저항한 흔적 등은 없는지도 살펴본다. 과학수사계 감식팀이 이날 중 차량 감식에 나선다.

범행에 앞서 A씨 일가족은 지난달 30일 오후 자택에서 출발해 무안과 신안을 거쳐 진도에 도착, 지난 1일 자정께 선착장으로 향했다. 범행 전 일가족 모두 각자 휴대전화가 꺼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범행 전 폐쇄회로(CC)TV 영상과 통신 기록 등을 살펴 일가족의 정확한 행적도 시간대별로 재구성한다.

경찰은 이날 강력 1개팀을 무안 모 숙박시설에 보내 일가족의 행적 관련 증거 확보에도 나섰다. 홀로 빠져나온 A씨의 요청에 따라 진도에서 광주까지 돌아오는 차량을 제공한 50대 지인의 범인 도피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한다.

지인의 차를 얻어 타고 광주로 돌아온 A씨는 전날 오후 9시9분께 광주 도심에서 긴급체포됐다. /뉴시스

처·자식 태워 바다 돌진한 아버지… 범행 전후 행적은

두 아들 학교에 “가족여행 간다” 체험학습 신청

무안서 숙박한 뒤 목포서 가족에 수면제 먹게 해

홀로 탈출, 다른 가족에 전화… 지인 차 타고 이동

가족을 태운 차량을 몰고 바다로 돌진해 살해한 아버지가 경찰 조사에서 “채무가 많아 힘들었다”고 범행 동기를 실토했다.

경찰 수사로 아내와 두 아들은 비정한 아버지의 계획을 모른 채 가족여행을 떠났다가 참변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과 행적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3일 광주 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일가족을 태운 차량을 몰고 바다로 돌진해 숨지게 해 살인 혐의로 조사를 받는 아버지 A(49)씨와 가족들은 지난달 30일 전남 무안으로 여행을 떠났다.

같은 고등학교에 다니는 A씨의 두 아들(18·16)은 학교 측에 “가족여행을 간다”며 교외 체험학습을 신청, 당일 결석했다.

무안의 한 숙박시설에서 하룻밤을 묵은 A씨 가족은 다음날인 31일 저녁께 숙박시설을 빠져나왔다.

이후 목포와 신안을 거쳐 진도로 향하던 A씨는 중간 지점인 목포 모처에 세운 차 안에서 가족들에게 ‘영양제’라며 수면제와 음료를 건넸다.

차에 탄 동갑내기 아내와 두 아들은 별다른 의심 없이 남편, A씨가 건넨 약이 수면제인 줄도 모르고 복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전했다.

자정을 넘겨 지난 1일 오전 1시12분께 진도군 한 항만에서 A씨는 가족이 탄 승용차를 몰고 바다로 돌진했다.

바다에 빠진 차량 안으로 물이 들어차자 A씨는 열려 있던 운전석·조수석 창문 틈으로 홀로 빠져나와 뭍으로 올라왔다.

A씨는 인근 상점에 들러 공중전화로 자신의 또 다른 가족에게 전화를 걸었다.

A씨의 또 다른 가족은 A씨의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소방 당국이나 경찰에 물에 잠긴 차량 안 가족들을 구조해달라는 신고는 하지 않았다.

범행 다음날인 전날 오후 2시께 항만에서 약 3㎞ 떨어진 인근 마을에서 A씨는 지인과 만나 그의 차를 얻어 타고 광주로 향했다.

광주에 도착해 지인의 차를 타고 이동하던 A씨는 추적에 나선 경찰에 의해 같은 날 오후 9시9분께 광주 서구 양동 길거리에서 긴급체포됐다.

A씨는 경찰에서 “채무가 많아 생활고로 힘들었다. 아내와 두 아들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바다로 돌진했다. 입수 뒤 홀로 차량에서 빠져나왔다”고 범행을 시인했다.

다만 A씨는 처음에는 “가족과 함께 나도 수면제를 먹었다”라고 했다가 “가족에게만 먹게 했다”고 하는 등 진술을 번복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범행 전 폐쇄회로(CC)TV 영상과 통신기록 등을 살펴 일가족의 정확한 행적도 시간대별로 재구성, 범행 경위 규명에 수사력을 모은다. /뉴시스

‘피붙이는 무슨 죄’… 빚더미 끝에 가족 살해 “사회적 기반 실종”

처자식 살해 가장… 광주·전남 유사 사례 매년 발생

무안서 치매 어머니 간병·생활고에 존속살해 50대

‘코인투자 실패’ 완도서 10살 딸과 극단 선택 30대도

채무에 따른 생활고를 이유로 배우자와 두 아들이 탄 차량을 바다로 몰아 살해한 뒤 홀로 생존한 40대 가장을 향한 지탄 여론이 끓고 있다.

신변 비관을 이유로 형과 치매 노모와 세상을 등지려다 살해한 50대, 10살배기 딸까지 희생 당한 일가족 비극에 이어 또 다시 가족 살해 사건이 발생하면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3일 일가족을 태운 차량을 몰고 바다로 돌진해 숨지게 한 아버지 A(49)씨를 살인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1시12분께 진도군 한 항만 선착장에서 동갑내기 아내와 두 아들(18·16)이 탄 승용차를 몰고 바다로 돌진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가족이 탄 차량은 전날 밤 선착장과 약 30m 떨어진 수심 3~5m 아래 해상에서 발견됐다. 차량에서는 아내와 두 아들이 숨진 채 발견돼 인양·수습됐다. A씨는 홀로 탈출해 지인의 도움을 받아 도주, 2일 오후 광주 서구 양동에서 긴급체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경찰에 “채무가 많아 생활고로 힘들었다. 아내와 두 아들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바다로 돌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의 구체적인 금융 거래 내역을 확보·분석, 정확한 범행 동기를 밝힐 방침이다.

스스로의 뜻과 무관한 일가족 참변이라는 그릇된 선택은 잊을 만하면 되풀이되고 있다.

지난해 6월9일 오후 5시5분께 무안군 한 선착장에서는 B(50)씨가 차량에 70대 어머니와 50대 형을 태운 채 바다로 돌진, 어머니와 형을 숨지게 했다. B씨는 홀로 구조돼 살아남았다.

B씨는 2008년부터 거동이 불편한 치매 환자인 어머니를 15년 넘게 보살폈다. 생업까지 관두고 간병에 집중하던 중 이마저도 힘들어지자 가족과 함께 생을 등지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돼 최근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앞선 2022년 6월에는 C(36)씨 일가족이 탄 승용차가 완도 한 항구 앞바다에서 실종 신고 한 달여 만에 인양됐다. 일가족 3명 모두 숨졌다.

특히 이 사례는 부모의 그릇된 선택에 불과 10살 밖에 되지 않은 딸이 희생되면서 전국적인 공분을 불러 일으키기도 했다.

차를 바다로 몰았던 C씨도 숨지면서 사건은 ‘공소권 없음’ 종결됐다. 다만 수사를 통해 C씨가 가상화폐 투자 과정에서 큰 손해를 입은 내용이 확인돼 생활고에 따른 비극으로 잠정 파악됐다.

부모에 의해 10살 딸까지 희생된 사건이 발생한 지 3년 지났지만 학생 관리 강화 방침 외에는 별다른 제도 개선은 없었다.

전문가들은 잇단 비극의 반복을 막기 위해 사회적 연대 강화를 주문하고 있다.

최아라 광주대 아동학과 교수는 “대한민국은 가족 응집성을 강조하다보니 구성원을 독립 개체가 아닌 ‘하나’로 보는 경우가 강하다. 이번 사건 또한 가족 구성원의 실패에도 ‘사회가 책임져 줄 수 있겠다’는 믿음이 사라진, 사실상 ‘사회적 기반 실종’ 상황이 낳은 비극”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가족 구성원 개개인들에게서 암묵적인 위험 징후가 있었을 것이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이 이러한 부분을 파악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제도”라며 “사회적인 연대가 약화하고 있는 실태를 개선할 정책이 시급하다. 주변의 관심과 돌봄을 통해 비극의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뉴시스

(주)통일화물은 정성과 책임으로 늘 변함없이 고객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책임있는 물류문화를 만들어가는데 앞장서는 (주)통일화물
나보다 고객을 먼저 배려하는 아주 특별한 만남
이제 (주)통일화물을 만나보십시오.

(주)통일화물이 힘찬 도약을 시작합니다

- 취급차량 : 1t~12t
- 중앙지 및 지방지 신문수송전문
- 정보지 · 신문 광고대행
- 광고전단지 운송 · 배포
- 일반이사 및 포장이사전문
- 기업물류 운송 전문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1573-1번지 3층 ☎(062) 956-8500~2 Fax(062) 956-2001